

불교로 개종을 강요당하면서도 신앙을 유지했던 수많은 잠복 기리시탄

시마바라·아마쿠사의 난은 막부에 충격을 안겼다. 1639년, 막부는 포르투갈 선박의 일본 내항을 완전히 금지하고 쇄국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가톨릭과 대립하던 프로테스탄트 네덜란드인이 포르투갈인을 대신해 일본과 무역을 시작했고, 1641년에 히라도에 있던 네덜란드 상관은 나가사키의 인공섬인 데지마로 이전되었다.

1617년부터 1644년까지 75명의 선교사와 1,000명이 넘는 일본인 기리시탄이 처형되었다. 탄압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막부는 성화상과 메달 등 신앙 도구를 밟게 하여(일본어로 '에부미'라고 한다) 기리시탄을 적발하고자 했다. 또한, 신자를 불교로 개종시켜 슈몬아라타메초(불교의 신자임을 기록한 장부)에 기재하는 등 사원의 관리하에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신도들은 계속해서 은밀히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켜나갔다.

엄격한 그리스도교의 금교하에 1642년과 1643년에는 일본에 밀입국한 10명의 선교사가 체포되었다. 일본의 마지막 선교사로 알려진 고니시 만쇼가 1644년에 순교하면서, 하비에르에서부터 시작된 선교사와 일본인의 교류를 통한 그리스도교 선교는 결국 그 명맥이 끊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잠복 기리시탄이 은밀히 신앙을 계승하면서 하비에르가 밝혔던 불은 거칠 줄을 몰랐고, 유럽의 영향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졌다.

(삼화: 쇼지 요시타카)

연표

1543 포르투갈에서 총이 전래됨. 일본과 유럽 문화가 처음으로 접촉함

1549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가고시마에 상륙함

1550 히라도에 최초로 포르투갈 선박이 내항하여 남만 무역이 시작됨. 나가사키 지방에 그리스도교가 전래됨

1563 오무라 스미타다가 요코세우라에서 세례를 받음

1571 나가사키 개항

1579 알렉산드로 발리냐노의 일본 방문

1580 나가사키가 예수회의 영지가 됨

1580 아리마 하루노부가 히노에 성에서 세례를 받음

1580 아리마에 세미나리오를 개설함

1582 덴쇼켄오 사절단, 나가사키를 출발함

1584 덴쇼켄오 사절단이 스페인 국왕을 알현함

1584 아리마 하루노부가 우라카미무라를 예수회에 헌납함

1585 덴쇼켄오 사절단이 2명의 교황을 알현함

1587 바테렌(신부) 추방령이 공포됨

1597 외국인 수도사 6명을 포함한 신자 26명이 순교함

1603 에도 막부의 개창

1614 에도 막부에 의한 그리스도교 금교령이 공포됨

1637 시마바라·아마쿠사의 난이 발발함

1644 최후의 선교사가 순교하면서 일본 국내에 신부가 존재하지 않게 됨